

영어어문교육 10권 1호 2004년 봄

생성문법에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

최숙희

(한국과학기술원)

Choe, Sook-Hee(2004). Derivational approach and representational approach in generative gramma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1), 179-2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dequacy of derivational approach and represent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theories in generative grammar. As the generative grammar is based on the derivational process of syntactic theories, it is suggested that derivational approach is more valid than representational approach. Move, Economy Principle, Local Economy and Label-free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framework support the preference of derivational approach to representational approach with the elimination of computational complexity, minimality, and label-free phrase structure. Syntactic structure is considered a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of the properties of lexical items containing probe and economy conditions constrained by bare output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Pseudogapping in Lasnik(1999) is analyzed in terms of Object Shift, that is, overt raising to Spec of Agr_o and the PF deletion of VP in representational approach. Hence, it is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derivational and 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syntactic theories can be admitted in generative grammar.

[derivational/representational/move/local economy/label-free phrase structure/pseudogapping, 도출적/표시적/이동/국부적 경제성/명칭 무표시 구조조/모의공백화]

I. 머리말

생성문법의 통사론 동향에 맞추어 본 연구는 도출적 접근(Derivational Approach)과 표시적 접근(Representational Approach)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상반되는 이런 두 입장이 더욱 대립된 양상을 보이며 그 이론적 중요성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이에 Chomsky(1995, 1998)의 최소주의 체계 속에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면서 통사적 언어현상에 대해 타당한 접근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통사론에서 문법 운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으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이 대립되며 존재한 것은 생성문법 이전부터였다. 생성문법은 과정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사이론의 도출적 접근에 입각하여 발전된 문법이론이다. 따라서 생성문법의 도출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는 데에는 표시적 접근방식보다는 도출적 접근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표시적 접근은 도출과정의 정보가 표시적 접근이 적용되는 구조계층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언어현상, 예를 들어 모의공백화 현상이나 재구성 효과에 있어서는 표시적 접근방식이 선호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도출적 접근방식과 표시적 접근방식에 대한 언어현상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도출적 접근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적형성 조건이 특별한 표시층위에서 부과되는지 또는 그 적형성 조건이 그 표시층위로 이끄는 도출에 내재한(internal) 것으로 부과되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에서의 Chomsky(1986)의 이동이론, 국부적 경제성 원리 그리고 Collins(2002)의 명칭 무표시 구구조 등을 다루면서 Chomsky(1995, 1998)의 최소이론 체계 안에서 통사이론의 도출적 접근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정당화해 보려고 한다. 또한 모의공백화 현상과 재구성 효과를 살펴보면 Lasnik(1999)의 주장을 중심으로 표시적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생성문법에서의 통사이론에 대한 분석방식을 제시해 보겠다.

II.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

Chomsky(1993, 1995)는 생성문법에서 언어는 복잡한 구조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간결한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현상들은 언어 원리들에 의해서 과잉 결정되지 않으므로 잉여적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최소주의 이론(Chomsky 1995, 1998, 1999)은 이 가정들을 탐구 방식으로 삼아 언어에 대해 최대의 간결한 설계를 추구하고 있다.

통사이론에서 문법 운용에 대한 두 가지 접근인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의 대립은 생성문법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도출적 접근방식은 문법 현상을 요소들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표시적 접근방식은 문법 현상을 배열상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생성문법은 과정에 대한 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에 도출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발전된 문법이론이다. 최소주의 이론 안에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의 우열을 명확하게 논증하기는 어렵지만, 생성문법은 최소주의 체계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통사이론에 대한 도출적 접근에 입각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생성문법의 도출과정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설명하는 데에는 표시적 접근보다 도출적 접근이 더 명시적이다. 또한 도출과정의 정보가 표시적 접근이 적용되는 구조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표시적 접근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Lasnik(1999)에서 제안하듯이 생략현상의 특별한 경우인 모의공백화 현상과 같은 언어 현상에서는 표시적 접근이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소주의에서 논의되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들이 도출적 접근에 입각하여 발전하고 있다. Collins(1997)가 제안하듯이 유인/일치나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 등은 표시적 접근방식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최소주의의 도출적 접근은 경제성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며 도출적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다. Collins(2002)에서는 통사이론에서 구범주(phrasal category)의 명칭(label)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안하며 명칭이 사용되어온 핵계층 이론, 선택(Selection), 최소 연결 조건 그리고 음성형태 접합점에서 구범주의 명칭 없이 명칭 무표시(Label-free) 구조로 일반화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구구조 현상은 도출적이므로 명칭을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최소주의에서 경제성 원리는 연산적 복잡성(computational complexity)의 개념에 중요하게 기초하고 있으며 연산적 복잡성 개념을 위한 도출적 접근방식은 타당한 것 같다. 표시적 접근에 반하여 도출적 접근에 대한 경험적 동기는 제시되어있지 않지만, 연산적 복잡성은 표시적 접근방식에서는 적절하게 연산적

이지 않은 것 같다. 도출적 접근에 대한 동기가 바로 연산적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정을 위한 동기들인 것이다. 최근 강력 순환성 가설(Strong Cyclicity Hypothesis)은 문법의 모든 부문이 하나의 통합 순환체계에 기초하여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 가설은 문법의 모든 운용을 순환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도출의 연산적 복잡성을 최소화하면서 도출적 접근방식도 더욱 지지한다.

생성문법에서 도출적 접근에 대한 강력한 이론이 Epstein(1999)에서 제안되었다.* 그의 강력한 도출적 접근방식에서 통사적 관계는 도출과정 자체에서 완전히 예견될 수 있고 모든 해석 정보가 통사 도출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서, 각 통사적 운용 후에 의미론과 관련된 어떤 구조 정보도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접합점으로 간주되는 음성형태와 논리형태도 각각 도출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음성형태와 논리형태를 언어적 층위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도출적 접근방식에서는 어떤 도출 단계의 운용이 끝나면 다음 도출 단계로 넘어 가므로 고정적으로 언어적 층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력 순환성 가설을 지지한다.

반면 도출적 접근과 대조적으로 Brody(1995)를 중심으로 하는 표시적 접근이 있다. 표시적 접근에서는 언어가 언어표현에 대한 적형성 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을 정의하며 연산의 결과로 나타난 표시를 점검하여 도출의 적형성을 결정한다.

Chomsky(1998, 1999)도 도출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강력 도출적 접근방식은 배격하고 있다. 그는 수행체계에 정보를 제공하는 접합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접합점에 적용되는 운용들을 허용하고 있다. 이 접근법은 강력한 순환성 가설을 배제하고 후순환(post-cyclic)이나 비순환(non-cyclic) 문법적 운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논리형태에 양화사 작용역 해석, 결속 이론 그리고 선행사 내포 삭제 등이 적용되고 음성형태에 강세규칙, 운율규칙, 생략규칙 등이 적용된다고 본다.

* Kitahara(1997)도 논리형태는 통사적 관계들을 포착하는데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출과정이 접합점 체계들과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직접 제공한다라고 간주하고 도출적 접근방식을 강력히 지지한다. 언어의 연산체계는 배번집합에서 어휘항목들을 선택하고 접합점 체계와 관련이 있는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구조조기 절차를 수행한다고 본다.

III. 생성문법에서 이동과 경제성

생성문법 이론에 의해서 다음 이동 구문들을 살펴보자.

- (1) a. *What_i do you think [CP t'_i that [IP Mary fixed t_i]]?*
- b. *How_i do you think [CP t'_i that [IP Mary fixed the car t_i]]?*
- c. *??What_i do you wonder [CP whether [IP Mary fixed t_i]]?*
- d. ** How_i do you wonder [CP whether [IP Mary fixed the car t_i]]?*

Chomsky(1981, 1986)의 지배이론에 따르면, (1a)에서 흔적 t_i 는 *fixed*에게 의미역 지배되므로 고유지배되고, t'_i 는 CP가 *think*에게 L-표시되므로 선행사 지배되어 문법성이 설명된다. (1b)에서도 모든 흔적이 선행사 지배로 고유지배되어 문법성이 설명되지만 여기에서는 운용자가 비논항인 *how*이므로 그 연쇄의 꼬리도 논항이 아니다. (1c)에서는 *whether*가 종속절 CP의 지정어 자리에 있다고 간주되므로 *what*이 종속절의 지정어 자리에 들러 가지 못하고 종속절의 VP와 주절의 VP에만 부가되었다가 주절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간다. 이때 두 개의 장벽 IP와 CP를 건너가게 되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여 문법성이 낮은 문장이 된다. 그러나 (1c)는 공범주 원리는 위반하지 않는다. 즉, 흔적 t_i 는 *fixed*에게 의미역 지배되므로 고유지배되고 종속절의 VP와 주절의 VP에 대한 부가로 인한 흔적들은 논리형태에서 a-처리(Affect-a)에 의해 삭제되므로 고유지배에는 문제가 없다. 반면 (1d)에서는 종속절 CP의 지정어 자리에 *whether*가 있어서 *how*는 종속절 IP에서 주절 VP로 직접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두 개의 장벽인 IP와 CP를 건너게 되어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고 공범주 원리도 위반하게 된다. 종속절 IP 안에 있는 흔적은 의미역 지배도 되지 않고 선행사 지배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속절 IP에 있는 *how*의 흔적 t_i 에 가장 가까이 있는 흔적은 주절 VP에 부착된 것인데 두 흔적 사이에는 두 개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d)는 공범주원리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완전 비문이 된다.

최소이론에서는 지배 개념 없이 이동이론으로 문장의 문법성을 간결히 설명한다. (1a)는 연쇄의 연결을 최소화해야 하는 최소연결조건을 만족시킨다. 의문사 *what*이 종속절 목적어 자리에서 종속절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때나 또한 종속절 CP의 지정어 자리에서 주절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때도 비논항 위치를 하나도 건너지 않았다. 최소이론에서 VP는 Agr_o에게 L-표시되므로

* 하위인접조건: 이동 규칙은 한꺼번에 둘 이상의 장벽을 건너서 적용될 수 없다.

로 장벽이 아니지만 C는 IP를 L-표시하지 못하므로 IP는 장벽이다. 이 때 의문사 *what*이 종속절과 주절의 IP에 추가되었다가 이동해 간다고 간주하여 *what*은 장벽을 하나도 건너지 않아서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명된다. (1b)에서도 *how*의 운용자 이동은 (1a)와 똑같이 최소연결조건을 만족시키고 장벽을 하나도 건너지 않아서 정문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1c)에서 *what*의 운용자 이동은 장벽을 하나도 건너지 않지만 최소연결조건을 위반한다. *what*이 종속절 IP에 추가되었다가 주절 IP에 추가되기 위해 이동할 때 *whether*가 차지하고 있는 CP의 지정어 자리인 비논항 위치를 건너갔기 때문이다. (1d)에서도 *how*의 운용자 이동은 (1c)에서와 같이 장벽을 하나도 건너지 않지만 최소연결조건을 위반한다. 역시 *how*가 이동할 때 CP의 지정어 자리인 비논항 위치를 건너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1c)와 (1d)의 비문법성은 예상되지만 실제로 (1d)는 완전 비문이다.

흔적이 이동이 일어나는 위치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삭제에 의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논항 연쇄에서의 중간흔적과 부가어 연쇄에서의 중간흔적사이의 삭제가능성 비대칭이다. Chomsky(1991)는 경제성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비대칭을 설명한다. 논리형태 층위는 도출의 경제성원리에 상응하는 완전해석원리(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를 만족시켜야 한다. 도출의 경제성이 도출에서 여분의 단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완전해석원리도 표시에서의 여분의 상징들(symbols)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논리형태층위에서 모든 요소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 후 α -처리의 한 예인 삭제가 그런 합법적 요소를 산출하기 위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1c)에서처럼, 논항 위치에서 이동하는 연속 순환적 비논항 이동은 합법적 논리형태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닌 연쇄를 만들어 낸다. 연쇄의 꼬리는 논항위치에 있고 다른 것들 모두는 비논항 위치에 있어서 그러한 비동질적인 연쇄는 논항 연쇄도 부가어 연쇄도 아니다. 그런 연쇄를 합법적 논리형태 요소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중간흔적을 삭제하는 것이다. 반면 연속 순환적 부가어 이동에서 그 연쇄의 모든 요소들이 비논항 위치에 있어 동질적이므로 그 연쇄는 합법적 요소인 부가어 연쇄이다. 도출의 경제성에 의하면 어떤 중간흔적의 삭제도 일어날 수 없으며, 그것들은 논리형태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법적 요소이지만 적형하지 않은 것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Chomsky는 논항-부가어 비대칭을 장거리 이동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합법적 논리형태 요소들의 범주화는 상응하는 부가어 연쇄의 합법성과는 대조적으로 논항의 WH-이동 연쇄의 비합법성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양동휘(1994)에서 지적하듯이 최소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한다.

* 완전해석원리: 논리형태와 음성형태의 모든 요소는 각각의 해석 규칙에 의해 남김없이 해석되어야 한다.

- (2) 논리형태에서 비동질적 연쇄의 중간 구성원들(흔적들)은 α -처리로 삭제된다.
- (3) 논리형태에서 t^* 를 내포하는 구문은 완전 비문이다.

다시 말해서, (1d)에서는 *how*의 운용자 연쇄의 모든 구성원이 비논항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운용자 연쇄는 동질적이다. 따라서 t^* 가 (2)에 의해 삭제되지 않고 (3)에 의해 완전 비문으로 판명된다. 반면 (1c)에서 *what*의 운용자 연쇄는 꼬리 구성원만 논항 위치에 있고 나머지 구성원은 모두 비논항 위치에 있어 비동질적이기 때문에 (2)에 의해서 중간 흔적들이 논리형태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논리형태에서 t^* 가 삭제되고 없으므로 완전한 비문은 아니고 문법성이 낮은 정도로 판명된다.

흔적을 공범주원리 위반인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도출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 접근법은 도출적이다. 그러나 도출적 위반이 구제될 수 있는 방식에서는 표시적이다. 만약 위반하는 흔적이 논리형태 층위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 구조는 공범주원리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하위인접조건은 엄격히 도출적인 것으로 남아있다. 장거리 이동은 약간 문장의 저하를 일으키지만 논리형태표시는 하위인접 위반을 결정하는데 책임이 없고 그 위반은 도출과정의 온라인에서 결정된다.

이와 같이 t^* 가 발생하여 문법성이 낮아지는 것을 도출적 파탄(crash)이라고 하고, t^* 가 논리형태에 까지 남아있어 완전 비문이 되는 것을 표시적 파탄이라고 한다. 도출적 파탄은 하위인접조건 위반에 해당하고, 표시적 파탄은 논리형태 현상으로서 공범주 원리 위반에 해당한다.

Chomsky(1995, 1998)의 최소주의에서는 언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필수출력조건(Bare Output Condition)만 만족되면 저절로 만족된다고 보고, 언어에서 불필요한 비해석성 자질이 나타나는 것은 접합점 필수출력조건을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비해석성 자질은 일치를 통해 해석성 자질로부터 그 값을 부여받고 협의 통사론(Narrow Syntax)에서 삭제되어 완벽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통사이론에서의 이동 현상이다. 이동은 생성문법 초기에서부터 최소주의에 이르기까지 비해석성 자질의 설정을 요구하여 해석성 조건을 위반하는 비완벽성 요소이다. 그러나 이동과 비해석성 자질이 표층 해석(Surface Interpretation)을 위한 필수출력조건을 만족시켜 완벽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Chomsky(1995, 1998, 1999)에 의해서 주장되어온 도출적 접근이 정당화되고, 결과적으로 생성문법에서 통사이론에 대한 도출적 접근은 표시적 접근보다 더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최소이론의 언어에 대한 도출적 접근법을 가정하여 언어표현이 생성되는 단계를 준수해야 하는 경제성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최소주의에서 경제성 개념은 연산적 복잡성(computational complexity) 개념에 기초하며 연산적 복잡성은 도출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표시적 접근법에서는 연산적 복잡성 개념이 불가능하다. 생성문법 초기부터 최소주의에 이르기까지 도출적 접근법이 계속 유용하게 쓰여 왔다는 것은 도출적 접근법의 중대한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 최소주의와 더불어 발전되고 있는 강력 순환성 가설은 도출의 연산적 복잡성을 제거하면서 도출적 접근법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최소주의에서는 Collins(1997)에서 제안한대로 연산적 복잡성이 국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부적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국부적 경제성은 모든 문법적 운용이 국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상적용의 비국부성(Look-ahead Global Complexity)*을 허용하지 않고 그 문법적 운용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즉시 국부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 a. *John_i believes [_{TP} t_i to be [_{PP} a man in the room]].
 b. John believes [_{TP} a man_i to be [_{PP} t_i in the room]].

(4a)와 (4b)의 문법성의 차이는 단순 병합이 이동보다 경제적이라는 병합 우선(Merge over Move) 경제원리에 따라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4a)는 종속절에서 *a man*이 이동하는 대신 *John*이 병합되었음에도 비문이고, (4b)는 *John*이 병합되는 대신 *a man*이 이동했음에도 정문이다. (4b)의 도출을 위해 (4a)가 의미역 기준을 위반했음을 밝혀야 하는데, 그 때 의미역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논리형태까지 생각하여야 한다. 통사구조의 도출 과정에서 논리형태의 정보를 미리 활용하는 것은 예상적용의 비국부성을 초래하여 국부적 경제성을 위반하게 된다. 여기서 문법적 도출을 위해 논항은 의미역 위치에서만 순수병합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4a)에서는 논항 *John*이 비의미역 위치인 T의 지정어 자리에 순수병합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비문법성이 설명되고 (4b)에서는 T의 지정어 자리에 *a man*이 이동하여 삽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법성이 설명된다.

* 외현적 통사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전개될 논리형태의 정보를 활용하는 예상적용의 비국부성은 국부성 조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IV. 명칭 무표시 구조

Collins(1997)는 통사이론의 도출적 접근방식에서 앞서 언급된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을 지지하여 모든 종류의 비국부적 복잡성(global complexity)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Collins(2002)에서는 구별주의 명칭들인 NP, VP 등이 통사이론에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명칭 무표시 구조(Label Free Phrase Structure)를 제안한다. 생성문법이 발전함에 따라 구조 규칙에서 핵 계층 이론으로 변하고 다시 Chomsky(1994)에서는 필수 구조로 바뀌면서도 핵 및 최대투사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Collins(2002)에서는 핵계층 이론을 좀더 기본적인 원리에서 도출하기 위해서 필수 구조를 확대하여 명칭까지 제거한 구조로 명칭 무표시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그는 구성성분의 명칭은 도출적 개념에 의해 전적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표시될 필요가 없다고 보면서 도출적 접근방식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개별적인 모듈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최소주의 이론에 접근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명칭 무표시 통사이론에서는 어휘 범주의 범주 자질들이 투사하지 않아서 비어휘 구들은 범주를 갖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명칭 무표시 통사이론은 더욱 도출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다. 그는 명칭 무표시 통사이론에서 병합(Merge)과 일치(Agree)를 통해서 핵계층 이론, 선택, 최소연결조건, 음성형태 접합점의 특성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Chomsky(1995)에서 운용 병합(V, X)은 $\{V, \{V, X\}\}$ 로 표시된다.

(5) 병합 $(V, X) = \{V, \{V, X\}\}$

여기서 외곽 동사 V는 정의에 의해서 최대투사범주이다. 다시 말해서 최대투사 범주는 더 이상 투사하지 않는 범주를 의미한다. 반면 최소투사는 전혀 투사가 아닌 범주이다.

그러나 Collins(2002)에서의 병합은 다음과 같이 단지 두 요소를 좀더 큰 구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6) 병합 $(V, X) = \{V, X\}$

병합은 투사층위, 즉 명칭 없이 좀더 큰 구를 만드는 것이다. 최대투사범주가 없기 때문에 최대통어(M-command)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핵계층 이

론의 기본적인 특성들이 도출적 통사관계와 경제성 조건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통사관계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7) a. 의미역(X, Y): X가 Y에게 의미역을 할당한다.
 b. 확대투사원리(X, Y): Y가 X의 확대투사자질을 만족시킨다
 c. 일치(X, Y): X가 Y에 부합되고 Y는 X에 값을 준다
 d. 하위범주화(X, Y): X가 Y에 대해 하위범주화한다.

(7)에서 X는 병합을 위한 선택자(selector)로서 탐색자이다. 그는 X를 통사관계가 일어나는 활동 중심으로 생각하여 활동장소(Locus)라고 부른다. 그는 Chomsky(1998)의 어휘접근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장소 이론을 제안한다.

(8) 활동장소 원리

X가 한 개나 그 이상의 탐색자/선택자를 가진 어휘 항목이고 X가 어휘 배열에서 선택되어 도출에 도입된다면, X의 탐색자/선택자는 어떤 새로운 비포화(unsaturated) 어휘항목들이 어휘배열에서 선택되기 전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때 X를 도출의 활동장소라고 부른다.

어휘 항목이 어떤 탐색자/선택자도 포함하지 않으면 포화되었다고 간주한다. 다시 말해서,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구구조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활동장소(Locus)는 목표어를 찾는 탐색이거나 병합이나 이동을 위한 구성성분을 찾는 탐색과 같은 모든 탐색이 일어난 확인가능한, 즉 접근가능한 어휘항목이라고 간주한다.

어휘항목 X가 구성성분 Y를 선택하는 것은 명칭과 투사범주가 쓰이던 곳이다. 우선 S-선택을 살펴보자. S-선택은 어휘항목과 그 보충어 사이의 관계가 의미적일 때 일어난다.

- (9) a. John asked the time
 b. *John wondered the time.

(9)에서 동사 *ask*와 *wonder*는 의문문을 S-선택하며, 그들의 내포의문문은 각각 DP이다. 그러나 (9b)에서 *wonder*는 의문문을 S-선택하지만 대격을 할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DP 보충어가 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9b)는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이 S-선택은 명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S-선택으로 설명될 수 없는 C-선택 (또는 하위범주화)에 대해서 살펴보자. Chomsky(1998, 1999)의 일치 이론에 의하면 탐색어(probe)와 목표어(goal)는 자질이 동일해야 하고 탐색어가 목표어를 성분통어하고 있으며 탐색어와 목표어 사이에 국부성 관계, 즉 최소성(Minimality)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Chomsky의 일치 이론에 따라 하위범주화 이론을 정의할 수 있다. 하위범주화(X, Y)에서는 하위범주화 자질이 만족될 필요가 있고 X는 Y를 성분통어해야 하며 최소성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다음 구문을 살펴보자.

- (10) a. John looks happy.
- b. John looks too happy to leave.

(10)에서는 기능 투사범주가 하위범주화를 막지 못하는 경우이다. (10a)에서 동사 *look*은 형용사를 위해 하위범주화한다. (10b)에서도 *too*가 동사 *look*과 형용사 *happy* 사이에 끼어들지만 하위범주화 특성이 만족된다. 왜냐하면 *too*는 어휘 범주 자질, 즉 [+N, +/-V]를 지니지 않아서 최소성이 하위범주화 관계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구문에서 나타나듯이 최소성 관계가 비어휘 자질에 대한 하위범주화도 제한한다.

- (11) *It is important that to say John is nice.

(11)에서는 *that*은 한정절 굴절소(INFL)에 대해 하위범주화하는데 비한정절 INFL이 방해하고 있으므로 내포절의 한정절 INFL이 *that*의 하위범주화 자질을 만족시키지 못해 비문법적이다.

이와 같이 명칭이 없는 명칭 무표시 구구조에서 통사적 도출이 내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보았다. 도출 과정에서 명칭이 없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최소성 원칙에 더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면 음성형태 접합점에서 명칭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명칭 무표시 구조에서는 음운적 구규칙들이 포화된 구성성분의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휘항목이 마지막으로 포화되는 도출 시점에서 그 구는 음운 부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문자화(Spell-Out)는 어휘 항목이 포화되는 순간마다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운 구 현상은 도출에서 다중 문자화(Multi Spell-Out)가 있을 때에만 명칭 무표시 이론에서 설명될 수 있다.

* 최소성 조건: X가 Y를 선택하면, *Y Z X (Y, Z은 어휘범주 [+/-V, +/-N])

결과적으로 통사이론에서 명칭을 제거하는 명칭 무표시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생성문법에서 통사 구조는 탐색자/선택자를 포함한 어휘항목 특성들과 필수출력조건(Bare Output Condition)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제성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온다는 도출적 접근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V. 표시적 접근과 모의공백화 구문

생성문법에서 통사이론에 대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의 상반된 문제가 계속 연구되어 오면서 도출적 접근방식에 관련된 문제는 적형성 조건들이 통사이론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표시층위로 이끄는 도출과정에 내재적으로 부과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이론 체계 속에서 이동에 대한 국부성 제약들에 관하여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을 조사하고 명칭 무표시 구조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출적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Lasnik(1997)은 Chomsky의 표시적 접근에 대한 반대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핵 이동에 있어서 논리형태에서 관련된 연쇄가 이동된 항목과 그것의 최초 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의 주장이 아주 강력한 것이고 표시적 접근은 중간 흔적과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리형태에서 연쇄들은 단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흔적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논항-부가어 비대칭에 대한 설명은 기본적으로 표시적 양상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Lasnik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도출적 접근방식을 지지한다. 그러나 부가어-논항 비대칭에 대한 설명들은 결정적으로 표시적 접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사이론의 도출적 접근에 반대하는 표시적 접근의 증거가 Lasnik(1999)에서 제시하는 모의공백화(Pseudogapping) 구문이다. 생략현상 중에서 한정 조동사가 있는 동사구 생략(VP-ellipsis)의 특성과 동사구의 한 요소를 우측에 나머지(remnant)로 남기는 공백화(Gapping)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략 현상이 Levin(1979)에 의해서 모의공백화 현상이라고 불려진다. 다음에서 모의공백화 구문의 특성을 살펴보자.

(12) a. If you don't believe me, you will ~~believe~~ the weather.*

b. I rolled up a newspaper, and Lynn did ~~roll up~~ a magazine.

* 사선(/)이 그어진 철자는 음성형태 삭제(PF Deletion)를 나타낸다.

Levin(1979)은 (12)의 문장들은 좋은 문장이라고 간주한다. 모의공백화 구문은 완전히 문법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좋은 문장으로 받아들여진다.*

- (13) a. The DA proved Jones guilty and the Assistant DA will *prove* Smith *guilty*.
 b. ?John gave Bill a lot of money, and Mary will *give* Susan *a lot of money*.

모의공백화 현상은 문장 (12a)에서처럼 그 과정이 단순 주절동사의 삭제인 것처럼 보이나, 문장 (13)에서는 생략에 단순 주절동사 이상의 것인 주절동사와 소절의 술어나 이중 목적어 구문의 두 번째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다.

모의공백화 구문은 강자질에 대한 도출적 접근법과 표시적 접근법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도출적 접근법은 외현적 이동을 야기시키는 강자질이 유인하는 핵의 자질이라고 간주한다. 이동 요소의 강자질은 일반 변형에 의해서 더 큰 구조에 내포되기 전에는 제거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강자질이 점검받고 삭제될 기회를 가지기 전에 도출은 종료되고 만다. 따라서 Lasnik(1997)은 어떤 항목을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항목의 강자질에 대한 증거는 도출적 접근법에 반대되는 증거라고 간주한다. 모의공백화 현상은 적어도 그런 증거를 제공한다.

Jayaseelan(1990)은 모의공백화 구문에 대해 비연속적 구문에 영향을 끼치는 생략 현상의 가능성을 반박하면서 모의공백화는 동사구 생략에서 생겨나며 나머지 명사구는 중량 명사구 이동(Heavy NP shift)에 의해서 동사구에서 이동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Lasnik(1999)은 이 제안이 본질적으로는 옳다고 동의하지만 Jayaseelan의 분석을 수정하여 나머지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중량명사구 이동 대신에 Agr₀의 지정어로의 인상을 주장한다. 생성문법에서 동사구의 구성 요소를 나머지로 남기는 잔여 동사구 생략을 포함하는 모의공백화 구문에서 Lasnik(1999)은 목적어 전이, 즉 Agr₀의 지정어로의 외현적 인상을 통해서 표시적 접근을 나타내고 있다. 영어에서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조건에 의해서 Agr₀의 지정어로의 외현적 인상을 지닌다는 최소주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다.

Chomsky(1993)의 최소주의에서는 대격 명사구를 Agr₀의 지정어로 인상하는

* 모의공백화 구문에서 명사구 나머지 대신에 형용사 나머지를 지니는 것은 좋지 못하다.

(i) a. *You probably just feel relieved, but I do jubilant.
 b. These leaks taste terrible. *your steak will better.

것은 논리형태에서 일어나는 내현적인 것이라고 가정한다. Jayaseelan(1990)과 Lasnik(1997)에서 모의공백화를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는 이상, 생략 과정은 음성형태부문의 삭제라기보다는 논리형태부문의 복사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Chomsky(1995)와 Lasnik(1997, 1999)에서 주장하는 논리형태 이동에 대한 이론에서는 이동은 형식 자질이 점검될 필요에 의해서만 야기되기 때문에 형식자질만 이동하게 되어 내현적 통사론에서는 필요한 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 이동이 강자질에 의해 야기되어 외현적일 때 음성형태 요건은 전체 구성요소가 일종의 선도(pied piping)를 통하여 이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이동이 내현적일 때는 음성형태 요건은 관련이 없고 경제성에 의하여 이동은 전체 구성요소에 대한 것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대격 명사구의 형식자질을 Agr₀의 지정어로 내현적 인상하는 것이 어떻게 생략 형상을 만들 수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Lasnik(1997)은 이동이 생략을 허가하는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 낸다면 그 이동은 내현적이라기 보다는 외현적이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이동이 외현적이라면 생략이 논리형태 복사를 포함해야 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생략 허가 형상이 논리형태/음성형태 분리 이전에 만들어져야 한다면, 생략은 쉽게 음성형태 삭제 현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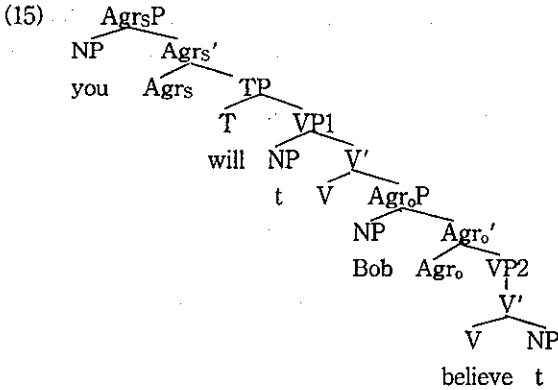
Koizumi(1993, 1995)에서는 대개 강자질에 의해서 유도된 인상은 항상 외현적이라고 주장한다.* Lasnik(1997)은 이 경우 강자질은 Agr의 EPP자질, 외현적 주어 인상을 유도하는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Koizumi는 분리 동사구 가설을 주장하며 V는 Agr₀를 거쳐 더 상위의 외곽 V 자리로 인상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가설 하에서 모의공백화 구문을 생각해보자.

(14) You might not believe me but you will B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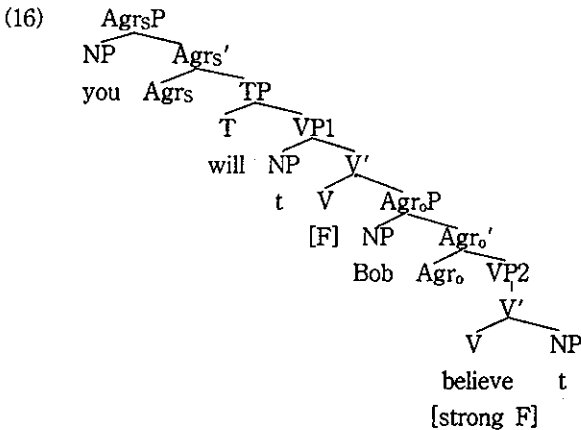
(14)에서처럼, *Bob*이 Agr₀의 지정어 자리로 외현적으로 이동하고 *believe*가 제 자리에 남아있으면 나머지 동사구 VP2가 삭제되어 모의공백화 구문 (14)가 생겨난다. 이 현상을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Chomsky(1991, 1993)와 Chomsky와 Lasnik(1993)에서는 내현적으로 대격 목적어를 Agr₀의 지정어로 인상했다

** 영어에서 어순은 V-O이니까 목적어가 VP에서부터 인상하면 동사는 훨씬 더 높게 인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생략이 일어나지 않는 구문에서는 동사가 인상되어야 하는데 모의공백화 구문에서는 왜 동사가 인상될 필요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Lasnik(1997)은 합치되는 도출을 위해서 동사를 포함하는 동사구와 함께 삭제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음성형태 접근하에서 동사를 외현적으로 인상시키는 강자질은 동사가 인상하는 목표(target)의 자질이라기보다는 어휘 동사 자체의 자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15)를 다시 설명해 보면, *believe*가 인상하지 못하고 다른 진행도 일어나지 않으면 외현적으로 점검되지 못한 강자질은 (16)을 음성형태에서

파탄시키고 만다. 그러나 *believe*를 포함하는 하위 동사구 VP2가 음성형태 부문에서 삭제된다면 강자질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음성형태 파탄을 일으킬 수 없다.

또한 도출주의 이론에서도 생략 현상은 만족될 수 있다. Chomsky(1995)의 선도(*pied-piping*)이론에 바탕을 둔 생략 사실에 대해 Ochi(1997)는 선도의 본질은 강자질에 의해서 생겨난 이동을 반영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Chomsky에서는 선도를 요구하는 것이 음운적 부분의 특성이다. 외현적 이동에 있어서 자질 F에 적용되는 이동은 적어도 한 개나 두 개의 도출의 연쇄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형식자질 FF[F]와 그 혼적으로 구성되어있는 $CH_{FF} = (FF[F], t_{FF[F]})$ 이고, 다른 하나는 α 가 일반 선도에 의해서 수반되는 범주이고 적어도 F를 지나는 어휘항목을 포함하는 $CH_{CAT} = (\alpha, t_{\alpha})$ 이다. CH_{FF} 는 항상 생기고 CH_{CAT} 는 합치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생긴다. 이것은 선도의 실패는 음성형태에서 위반을 일으킨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Lasnik(1997)은 표시적 접근방식으로 모의공백화 현상을 강자질의 음성형태 파탄 이론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비생략 타동사 구문에서 분리 동사구 가설을 가정하여 동사의 강자질이 점점되도록 동사는 더 상위의 외곽동사 자리로 인상한다. 이 때 동사가 인상하지 못하면 음성형태 파탄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생략은 그 도출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하위 동사구가 인상된 동사없이 삭제된다면 음성형태의 파탄은 없게 되고 가능한 모의공백화 구문이 생긴다.

강자질의 도출 이론으로도 모의공백화 구문의 구제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강자질의 음성형태 이론에 근거한 생략 사실을 도출 이론 하에서 포착할 수 있다. 하지만 생략 사실에 대해 강자질에 대한 도출적 접근법에 의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음성형태 접합점 층위의 특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VI. 재구성

생성문법 초기부터 의미해석 층위인 논리형태에서의 재구성은 WH-구 이동이나 양화사 인상, 교차현상 및 한국어의 뒤섞기 등을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Chomsky(1993)의 최소이론 체계 속에서 재구성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배제되기도 한다. 앞에서 논의된 Epstein의(1998)의 강력도출적 접근법에서는 어휘를 결합하는 순간마다 도출과정에서 논리형태와 음성형태가 설정됨으로써 독립된 논리형태 층위와 음성형태 층위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력 도출적 접근방식에서는 재구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도출적 접근법에 반대 입장인 표시적 접근법에서는 도출과정을 배제한 채 모든 적형식의 생성과 해석이 어휘적 속성과 재구성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가정된다. 언어 이론에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의미 해석을 위한 총위인 논리형태의 설정이다. 이 접근방식에서는 재구성을 통해 의미역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된다.

Chomsky(1993)에서는 흔적은 이동된 항목의 복사라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핵 이동의 경우 공범주 원리를 만족시키는 표시적 접근법을 위해 필요하다. 그 증거는 이동된 항목이 그 흔적들 중 하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재구성 효과에서 나온다. Chomsky는 흔적은 결속이론에 관계한다고 생각하는 논리형태 총위에서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다음 구문을 살펴보자.

(17) Mary wondered which picture of himself Bill saw t.

(17)에서는 *Bill*이 *himself*를 성분동어하지 못하지만 *Bill*은 *himself*의 선행사 역할을 한다. *himself*의 결속 조건이 *himself*의 복사인 흔적에서 만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적어도 최초의 흔적들은 논리형태에서 존재하고 복사들이다.

중간 흔적이 논항-부가어 비대칭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중간 흔적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중간 흔적과 관련하여 (17)에서 그런 흔적에 대한 증거가 있으나 그 증거는 논항-부가어 비대칭에 기반한 결론과는 다르다. (17)에서 보이는 최초 위치와 관련하여 재구성 효과는 중간 위치와 관련하여 일어난다. 도출이 연속적 이동을 포함하는 다음 구문을 살펴보자.

(18) Which picture of himself does Mary think that John said that Susan likes.?

표면 위치에 있는 WH-구와 관련하여 *himself*는 선행사 *John*과 적절한 성분동어 관계는 아니다. 또한 (19)에서처럼 가장 하위 동사의 목적어인 WH-구의 처음 자리는 *John*과 너무 멀리 떨어져 *himself*를 지닌다.

(19) *Mary thinks that John said that Susan likes pictures of himself.

알맞은 자리는 (20)과 유사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가장 하위 종속절의 지칭어 자리일 것이다.

(20) Mary thinks that John said that pictures of himself, Susan likes.

이와 같이 중간자리에 있는 흔적 복사는 대응화 관계를 허가할 필요한 구조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Lasnik(1997)에서는 중간 흔적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들이 다소 모순이 있음을 지적한다. 논항-부가어 비대칭에 기반을 둔 주장은 논항의 중간 흔적들은 논리형태 층위 이전에 제거되어야 하는 반면, 부가어 중간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중간 흔적들을 암시하는 재구성 효과는 WH-논항 이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Lasnik은 첫 번째 생각인 논항의 중간 흔적들이 논리형태 층위 이전에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가정한다.

Chomsky(1993)에서는 표시적 접근방식으로 재구성에 있어서 논리형태 층위에서 가시적 흔적인 복사에 모아진다고 가정한다. 그는 결속이론의 기본 양상이 단지 논리형태 접합점에서만 적용된다면 결속이론의 해석 설명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대응사에 대한 초기 생성문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접근방식은 논항-부가어 비대칭 분석과는 양립할 수 없이 논리형태에서 중간흔적은 물론 논항의 중간흔적까지 요구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용사 관계에 대한 좀더 도출적 접근법으로 Belletti와 Rizzi(1988)는 결속이론 A는 도출의 어떤 시점에서 온라인으로 만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재구성 효과에 있어서 결속이론 A는 도출과정의 출력에서 만족되지 않지만 도출과정에서의 어떤 이전 시점에서 만족된다고 보는 것이다. Lasnik(1997)이 언급하듯이 온라인 제안은 논리형태 흔적에 대한 설명과 매우 비슷하나 차이는 그것이 정확하게 논리형태 흔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중간 논항 흔적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논항-부가어 비대칭 설명을 유지시켜 준다. 만약 결속이론이 형태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해석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면 논리형태의 특정한 층위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사이론에 대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의 대립은 언어 현상에 따라 도출적 접근법과 표시적 접근법을 통합하는 혼합적 접근법을 계속 가정하고 있다.

VII. 맺는말

생성문법의 통사 이론에 대하여 Chomsky(1995, 1998)의 최소주의 체계 속에서 도출적 접근과 표시적 접근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 보았다. 도출적 접근방식은 문법 현상을 도출을 위한 요소들의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표시적 접근방식은 도출과정의 정보가 구조계층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 현상을 배열상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도출적 접근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적형성 조건이 특별한 표시층위에서 부과되는지 또는 그 적형성 조건이 그 표시층위로 이끄는 도출에 내재한 것으로 부과되는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문법은 과정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언어표현의 도출과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는 데에는 표시적 접근방식보다는 도출적 접근방식이 더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이를 위해 생성문법에서의 이동 현상과 경제성 원리를 다루어 보았다. 이동 현상에 대하여 Chomsky의 지배이론과 최소이론에 의해서 도출적 접근방식에 의해 분석하였다. 논리형태에서 비동질적 연쇄의 중간흔적들은 α -처리로 삭제되고 논리형태에서 위반하는 중간흔적을 내포하는 구문은 완전 비문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논항 연쇄와 부가어 연쇄에서의 중간 흔적의 비대칭을 조사하면서 논리형태에서 위반하는 중간흔적이 발생하여 문법성이 낮아지는 것을 도출적 파탄이라고 보고 위반하는 중간흔적이 논리형태에 까지 남아 완전 비문이 되는 것을 표시적 파탄이라고 간주하였다. 하위인접조건 위반은 도출과정의 온라인에서 결정되므로 도출적 파탄에 해당하고 표시적 파탄은 논리형태 현상으로서 공범주 원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경제성 원리가 연산적 복잡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산적 복잡성이 국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부적 경제성이 도출적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강력 순환성 가설은 도출의 연산적 복잡성을 제거하면서 더욱 더 도출적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도출적 접근방식을 지지하며 Collins(2002)의 명칭 무표시 구구조를 조사하였다. 핵계층 이론을 더 기본적인 원리에서 도출하기 위해서 명칭까지 제거한 무표시 구구조를 통하여 구성성분의 명칭은 도출적 개념에 의해 전적으로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표시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명칭 무표시 구구조는 최소성 개념의 최소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문법에서 통사 구조는 탐색자를 포함한 어휘항목 특성들과 필수출력조건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제성 조건의 상호작용 결과라는 도출적 접근방식을 지지하였다.

생성문법이 도출과정을 나타내기 위한 도출적 접근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

지만, Lasnik(1999)을 중심으로 하여 도출적 접근방식이 해결하기 어려운 모의 공백화 현상을 표시적 접근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모의공백화 현상은 목적어 전이인 Agr_o의 지정어로의 외현적 인상을 통해서 표시적 접근방식으로 나타내며 강자질의 음성형태 파탄 이론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모의공백화에서는 음성형태 접근하에서 동사를 외현적으로 인상시키는 강자질은 어휘 동사 자체의 자질이라고 보았다. 결국 분리 동사구 가설을 가정하여 동사의 강자질이 점검되도록 동사는 더 상위의 외곽동사 자리로 인상하며 동사가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 음성형태 파탄이 일어나므로 생략이 그 도출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 하위 동사구가 인상된 동사없이 삭제된다면 음성형태의 파탄은 없어지게 되고 가능한 모의공백화 구문이 생기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재구성 효과에 있어서도 Chomsky(1993)의 최소이론과 Epstein외(1998)의 도출적 접근법이 강화되면서 재구성이 약화되거나 배제되게 되었다. 이에 표시적 접근법으로 도출과정을 배제하면서 적형식의 생성과 해석이 어휘적 속성과 재구성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여 재구성을 통해 의미역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생성문법에서 통사 이론에 대한 도출적 접근법과 표시적 접근법 사이의 대조는 미묘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성문법에서 이동과 경제성 원리, 그리고 명칭 무표시 조건 등으로 Chomsky(1995, 1998)에 의해서 주장되어온 도출적 접근방식이 정당화되고 도출적 접근법이 표시적 접근법보다 더 타당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논항과 부가어의 국부성 비대칭, 생략에 있어서 모의공백화 현상, 그리고 재구성 효과 등은 도출적 접근법과 표시적 접근법 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다루며 표시적 접근법을 받아들여 언어 현상에 대해 혼합적 접근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어 통사론에서는 물론 영어교육에서도 도출적 논증법의 방법론을 언어이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참고 문헌

- 양동휘. (1994). 문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Belletti, A., & Rizzi, L. (1988) Psych-verbs and theta theor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291-352.
- Brody, M. (1996). *Lexico-logical form: A radically minimalist theor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_____. (1986). *Barrier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1991).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R. Freidin (Ed.),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pp. 417-454).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pp. 1-52).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1-48.
- _____.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1-56.
- _____.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1-40.
- Collins, C. (1997) *Local economy*.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_____. (2002). Eliminating labels. in S. D. Epstein, and T. D. Seely. (Eds). *Derivation and explanation in the minimalist program* (pp. 42-64). Malden, Mass.: Blackwell Publishing.
- Epstein, S. D., Groat, E., Kawashima, R., & Kitahara, H. (1998). *A Deriv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relat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Un-principled syntax: The derivat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S. D.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317-345).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Jayaseelan, K. A. (1990). Incomplete VP deletion and gapping. *Linguistic Analysis*, 20, 64-81.
- Kitahara, H. (1997). Syntactic operations and binding relations. m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Koizumi, M. (1993). Object agreement phrases and the split VP hypothesis. *Papers on Case and Agreement I: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8, 99-148.
- Koizumi, M. (1995).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syntax*. Unpublished

- doctoral dissertation, MIT.
- Lasnik, H. (1997).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 in modern transformational syntax.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_____. (1999). A note on pseudogapping. *Minimalist analysis* (pp. 151-174). Blackwell Publishers.
- Levin, N. (1979). *Main verb ellipsis in spoken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 Ochi, M. (1997). Move or attract?: Attract F and the pied-piping chain. Paper presented at the Open Linguistics Forum, Ottawa.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최 숙 희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305-70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Tel: (042) 869-4614
 Email: shchoe03@kaist.ac.kr

Revised in Feb., 2004
 Reviewed in March, 200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pril, 2004